

# 주간 테러동향

## Weekly Terrorism Trends

'24. 11.29(금)

### 지역별 테러 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

#### 유럽

- 獨, DHL 화물기 추락사고 관련 러 사보타주 가능성 수사
  - 11.26 언론은 리투아니아에서 발생한 DHL 화물기 추락사고 관련,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사보타주에 의한 공격인지 진지하게 자문해야 한다”며 러시아의 테러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
    - ※ 지난 7월, 영국과 독일 DHL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소포 화재 발생 관련 해서도 당국은 “러시아 공작원에 의한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부언
- 英, 유스틴역 인근에서 폭발물 의심 물체 발견
  - 11.23 언론은 런던의 유스틴 기차역에서 수상한 물체가 발견돼 역을 봉쇄하고 경찰 폭발물 처리팀이 출동하여 폭발물을 제거 조치했으며 최근 영국 곳곳에서 폭발물 의심 물체가 발견되고 있다고 보도
    - ※ 11. 22 駐영국 美 대사관 인근에서 폭발물 의심 물체가 발견되었으며 11. 23 런던 개트윅 공항에서도 의심 물체가 발견되어 600여 편의 항공편 지연·취소 발생

#### 미주

- 美 FBI, 국제 테러단체 ISIS와 연계된 30대 남성 체포
  - 11.25 언론은 FBI가 미국과 알바니아의 이중국적자인 30대 남성을 국제테러단체 ISIS에 물질적 지원 제공 및 테러단체 폭발물 제조 방법에 대한 홍보영상을 배포하려 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
    - ※ FBI는 테러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려는 사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
- 美 FBI, 영국에서 도주 중인 긴급지명수배 테러범 체포
  - 11.27 언론은 美 FBI가 영국에서 지명수배 테러리스트인 동물권 운동가 「다니엘 안드레아스 샌디에이고」를 체포했으며, 同人은 동물실험 기업에 폭탄 테러를 가한 후 21년간 도피 중이었다고 보도

## 중 동

- **이스라엘, 유대교 성직자 사망 사건 수사 착수**
  - 11.24 이스라엘 정부는 실종되었던 유대교 성직자 「츠비 코간」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이 범죄적인 반유대주의 테러 공격이라며 공개적으로 비난
    - ※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우즈벡 출신 공무원이 살해한 뒤 도주한 것이며, 이란이 코간의 행적을 감시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
- **이스라엘-헤즈볼라, 60일간 휴전案 잠정 합의**
  - 11.25 언론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과 헤즈볼라의 뼈빠테러 이후 전면전을 선언하며 공격을 이어가다, 60일간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지하는 내용의 휴전案에 잠정 합의하였다고 보도
    - ※ 다만, 세부 항목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어야 ‘최종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며, 美 중동특사는 다음달 5일 이전에 휴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아 · 태평양

- **韓, ‘분당 흥기난동범’ 무기징역 확정**
  - 11.20 언론은 지난해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흥기난동범’ 최원중(2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으며, 同人은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도
    - ※ 同人은 '23.8.3 성남시 AK플라자 부근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흥기를 휘둘러 사상을 유발
- **대테러센터, 2024 국가대테러 발전세미나 개최**
  - 11.21 언론은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2024 국가대테러 발전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同 행사의 목적이 대테러 활동의 발전 방안 모색 및 대테러 관계기관의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보도
- **韓, 게임행사장 허위 테러 신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필요**
  - 11.27 언론은 최근 국내 게임업계가 급증하는 허위 테러 예고 게시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행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응으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보도

튀니지 대통령 경호원 수송버스 폭탄테러

- '15.11.25 북아프리카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서 대통령 경호원 수송 버스를 겨냥한 폭탄 테러가 발생, 버스에 탑승한 경호원 등 12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



- 同 사건은 튀니지에서 일어난 첫 자폭 테러로, 테러범이 가방·조끼 안에 설치된 10kg 상당의 군용폭탄을 메고 버스에 탑승하여 자폭

- 사건 직후, ISIS는 자신들의 조직원 「아부 압달라흐 알투니시」가 튀니지에서 자살폭탄테러를 감행했다고 배후를 자처

- \* 同 사건 前, ISIS는 튀니지에서 2건의 대형 총기테러를 자행, 60여명의 사상자 발생

- 튀니지 당국은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개최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 폐쇄 및 해안·공항 보안을 대폭 강화

- 또한,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관련자 30여 명을 구금하고 무기를 압수

⇒ 국내외 내빈이 참석하는 국가 중요 행사 개최 時 주요 인사를 겨냥한 위협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강화 및 안전대책 수립 시 참고

< ISIS(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 >

- (목 표) 시리아·이라크 등 중동 전역을 통괄하는 이슬람국가 건설('04.4 결성)
  - \* 테러단체 지정 : UN('04.10), 미국('04.12), 캐나다('12.8)
- (연계세력) ISIS-호라산, 西아프리카·시나이 지부 등 24개 지부
- (활동수법) 시리아내 점령지 상실('19.3) 이후 잔당이 게릴라식 테러를 지속중인 가운데 북아프리카·아프간·동남아 등지로 이동, 재건모색
- (주요테러) ① '01.9 미국 항공기 납치 후 뉴욕 등에서 공중 테러 자행(2,996명 사망)  
 ② '17.12 이집트 수피교 사원 폭탄·총격테러(사망 305, 부상 128)  
 ③ '19.4 스리랑카에서 ISIS추종단체의 연쇄테러(사망 259명, 부상 500여명)

